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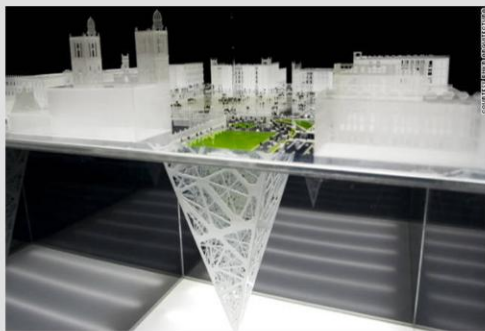
<http://theconversation.com/heres-how-to-fix-americas-crumbling-bridges-33781>



미국의 주택건설 시장의 회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ommerce Department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 주택시장의 2/3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신규 공사가 작년 동기대비 4.2%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 11월 이래 최고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다세대 및 단독주택에 대한 허가 건수도 108만 가구로 동기대비 4.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 6년간의 미국의 양적 완화 및 경기 호전에 힘입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가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 말까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른바 ‘그린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현대, 혼다, 도요타 등 완성차 기업들이 수소를 이용한 수소연료 전지차의 상용화에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몇몇 기업들이 폐수를 처리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본격적으로 실용화 하고 있습니다. 서부 LA 교외에 있는 FuelCell Energy는 세계최초로 tri-generation 폐수처리 플랜트를 건설/운영함으로써 폐수를 산업시설의 전기공급 및 교통 연료의 재생수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소연료 자동차가 얼마나 대중화 될지는 시장의 변화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새로운 수요를 미리 포착하여 대응한다면, 플랜트 수출의 좋은 틈새시장이 될듯합니다.



21세기말에는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 살게 될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율적인 지하개발이 인류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한 부분일 것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층건물 위주의 밀집된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도심개발을 위해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Self-supporting 콘크리트, 3D 모델링 등 관계 기술 및 사업분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최근 뉴욕, 런던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구조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제 계획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의 경우, 오래된 지하철 역의 버려진 구간을 이용하여 소규모 리테일 파크, 엔터테인먼트 센터, 오피스, 문화공간 등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http://www.cnn.com/2014/11/18/business/underground-cities/>

<http://www.cnn.com/2014/11/18/business/underground-cities/>

* Tier기준: 비도르엔진(건식기계, 농업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한 허용기준을 총칭하는 것으로 Tier1부터 4까지의 단계가 존재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각종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됨을 뜻함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4/11/19/how-slimy-kanimales-fake-known-for-profit-wins>